

美國의 4大都市를 巡訪하면서

閔 玉 仁

〈前京畿大學經營學教授〉

고 하와이를 떠나 못내 섭섭하였다.

一. 走馬看山の 50日

10年前에 본 美國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다. 昨年 11月 21日 金浦空港을 出發 금년 1月 10日 서울에 歸國할 때 까지 약 50일동안 하와이에서 20日(往復), 뉴욕에서 20日, 워싱턴에서 5日 등의 旅行에 이어서 歸路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5日間 머물렀다. 생각하던 짧은 期間에 쫓기는 마음으로 走馬看山格인 旅行을 한 셈인데도 들쭉사위가 있는 桑港과 빗쭉사위가 있는 日本에 들러오려던 旅程을 실행하지 못하고 今年中 또하나의 海外旅行을 남겨두게 된 것이 遺憾과 期待를 交叉시키는 點을 이루어 놓았다.

二. 하와이에서 旅裝을 풀다

1. 常夏의 香氣 그윽한 하와이

하와이 호노룰루에 到着한 21日은 快晴한 날씨였으며 나는 오전 9時(現地時間)에 旅裝을 풀어 놓았다. 무엇보다 筆者가 먼저 滿喫할 수 있었던 것은 常夏의 짙은 꽃 香氣이었다. 이땅을 찾는 觀光客들의 목에는 香氣 그윽한 花環(하와이 말로 레이라고 함)이 歡迎의 뜻을 듬뿍 담은 채 걸려진다. 하와이는 常夏의 나라이므로 하늘과 바다·山 모두가 푸르른 一色이다. 또 와이키키 海水浴場에서 일년내 海水浴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氣候의 天惠를 받았음이고 밤에도 裸像의 浴人을 보게 되는 것도 이 고장의 情겨운 風景의 하나인 것이다. 筆者가 이곳에 있으면서 아쉽게 생각된 것이 있다면 하와이 移民 75周年 記念行事를 旅行日程에 쫓기어서 參觀하지 못하

2. 韓國文化紀念館을 訪問하고

하와이 僑胞의 祖國에 대한 愛國心이 보편적으로 幅을 넓힌 것은 8.15 解放을 起點으로 해서 상당한 기간동안에 걸쳐 증진되어 온 것 같았다. 지금은 大韓航空의 經營으로 넘어간 仁荷工科大学의 創設은 하와이 僑胞들의 애국심을 象徵하는 뚜렷한 表象이라고 하겠다. 筆者가 본 바로는 그 동안 僑胞들은 故國에 대한 짙은 鄉愁와 偏愛속에서 巷間에 떠도는 所聞을 定說인 양 표현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많은 僑胞들은 祖國의 發展像에 感嘆을 하고 있어 가슴뿌듯하였다. 또한 이곳 旅行중에 韓國의 얼을 심어 놓은 하와이大學校 東西文化센터 構內에 建立한 韓國文化紀念館을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紀念館은 政府의 支援과 僑胞들의 誠心으로 이루어진 우리 고유의 美를 살린 建築物로써 異國의 낯선땅에서 別래 筆者를 除하고라도 이곳 僑胞들의 마음에 故鄉의 얼굴을 심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먼 異域에서 祖國의 내음을 볼 수 있는 그 즐거움은 그들이 아니고는 누가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 紀念館에 조그만 아쉬움이 있었다면 內部的 施設物이나 展示物을 좀더 보완하여 놓으면 錦上添花가 아닐까 生覺하면서 2次大戰의 戰場터였던 眞珠灣을 向해 발걸음을 옮겼다.

3. 脫罪意識한 日本人

1941年 12月 7日 美軍의 레이더網을 巧妙하게 뚫고 日本軍이 奇襲한 眞珠灣의 애리조나號 軍艦의 犧牲者數는 순식간에 數千名에 達하였고

被襲된 軍艦이 寄着한 그 자리에 지금은 海上記念館을 세우고 戰死한 軍人들의 階級과 이름을 刻字하였는데 그중에는 韓國人의 2世 토마스 김, 日本人 2世 토마스 기무라 등과 같이 美國人 이외의 兵士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찾아드는 大部分의 觀光客들은 日本人들로서 수십명, 수백명의 國民學校 學生들과 新婚의 觀光男女들로 줄을 잇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위에는 옛날의 蠻爆에 대한 罪意識이 떠올라 있지 않는듯 보였다. 그 수많은 英靈앞에서 머리 숙이고 祈禱하는 日本人觀光客이 되기를 바랐던 나의 單純함을 생각하였을 때 自嘲할 수 밖에 없었다.

하와이에는 中國系사람도 물론 많고 數的으로 제일 적은 韓國人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와이에 移民한 人口를 볼 때 日本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색이었다. 이들 日人중에는 行政機關으로는 州의 實權者, 學界의 大學總長, 自治團體의 市議會議員 등 日本人系들이 主要 要職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三. 뉴욕의 이모저모

1. 人種博覽會속의 黑白問題

뉴욕은 世界의 人種博覽會場이라 일컬어지기에 알맞게 되어있을만치 많은 人種들이 世界各地域으로부터 모여들어서 生活하고 있는 바 이 속에서 黑白問題는 오늘날 美國이 안고 있는 問題中の 問題로 되어 있다. 黑白問題는 비단뉴욕의 問題가 아니고 美國全體의 問題이지만 뉴욕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나는 黑白問題에 먼저 神經이 사로잡힌 것을 意識할 수 없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美國의 16代 大統領 링컨이 南北戰爭을 통해 黑人解放을 하는 英斷을 내렸지만 오늘날까지 黑人問題는 美國의 歷史的 宿題로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現實의 美國社會인것 같다.

人口 1千250萬名 內외의 뉴욕 市民중에서 白人에 버금하는 數의 黑人을 따져보면 여러가지의 系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奴隸系 黑人이다. 이는 當初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서 競賣過程을 거친 黑人들인 바이들 後裔가 오늘날 가장 온순한 黑人으로 定評되어 있으며 둘째는 移民黑人과 移民아닌 不法入國者들인 바 쿠마 등 中南美系 인디안系의 混血人(黑白混血兒는 黑人으로 낳아진다) 등으로 區分된다.

白人 또는 黃色人種으로부터 無視를 당하던 반발하면서도 친절히 대해주면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하는 黑人은 一般的으로 人情에 그리움을 담뱃 앓고 있는것 같았다.

아무튼 현재 黑人社會에서는 科學者를 포함한 教授, 藝術人 등 頭腦市民의 輩出率이 높아지고 長官, 次官, 次官補 등의 자리에 오르는 黑人들이 보이는가하면 國會議員도 十數名에 달하고 있다.

2. 있어걱정 없어걱정인 學生의 돈

우리의 현 社會에서도 외국유학을 다녀온 出衆한 人士들이 各分野에 두각을 나타내고 성실히 社會生活을 하고 있지만 뉴욕의 많은 교포들이 白人社會로부터 一般的인 人정을 받으려면 훌륭한 美國市民이 되어서 劣等感의 拂拭과 非常한 努力을 경주하여 科學者를 비롯해 많은 人材들이 속출되어 美國社會에 尊敬을 받는 동료들이 배출하기를 마음속으로 빌고자 한다.

또한 韓國留學生들의 實態를 들어 보면 돈이 있어도 공부를 얹하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學生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무언가 착잡한 감정을 느꼈다. 碩, 博士課程을 공부한답시고 월 수천달러의 學費를 學業을 빙자하여 使用하는 學生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 피눈물나는 苦行을 하면서 學業에 열성을 기울이는 學生들을 보고 한편으론 悔열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감을 느꼈다.

中高等教育은 또 몰라도 苦學으로 博士學位를 얻으려는 것은 事實上 無理한 일인 것이다. 하기는 美國大統領의 아들도 放學동안에는 아르바이트(Arbeit)를 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美國 특유의 現象들인 것 같다.

3. 美國人의 體力과 스케일(scale)

韓國人의 體力과 美國人의 體力은 대학공부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유치원에서 中·高

等學校까지는 韓國人과 白系美國人의 體力的隔差가 비교적 나타나지 않으나 大學의 專攻分野에 들어가면 體力差, 語學實力의 差가 顯著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研究하고 對處해야할 問題의 하나라고 生覺된다.

또 美國人(白系)은 우리와는 달리 先天的인 體力的 優勢와 틀에 박힌 個人生活도 우리와는 思考方式이 너무나 다르다. 예를들면 한 商店에서 들치기를 당해도 告發하는 대신에 再犯 3犯을 豫防하는 것으로 足한다고 自慰한다. 即 告發을 위한 시간낭비와 證言하는데서 입어야하는 時間被害 등을 計算하는 不告發主義이다. 美國 사람의 打算에 밝은 面貌를 이런데서도 볼 수 있다.

4. 自由의 女神像과 30弗의 非常金

뉴욕의 中心部에 가장 번화가인 맨하턴은 바위섬을 埋立해서 이루어진 港都인데 東쪽 江 건너 우뚝 솟아 있는 自由의 女神像은 프랑스의 寄贈品인데 뉴욕에 발을 들여놓는 觀光客은 이 앞에 한번쯤 서게 마련이고 地下三層 地上 102層의 높이를 자랑해온 엠파이어빌딩은 일년에 世界各國으로부터 150萬人 以上の 參觀客이 몰려 들고 있는데 이제 이 뉴욕의 名物은 名譽를 126層의 世界貿易빌딩에 양보하고 뉴욕 第2高層빌딩으로 몰려 앉게 되었다. 또한 이곳은 밤늦게 犯罪의 온상이라고 말하는 할렘 黑人街를 지나가려면 非常金を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常識化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暗黑街의 暴力 위협을 무사히 넘기는데 필요한 最小限의 方法인 것으로 알려졌다.

5. 뉴욕 博物館이 안겨준 虛脫減

뉴욕의 博物館에서 美國의 文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中國·日本 나아가서는 에집트 및 其他 世界 多數國家들의 갖가지 古代의 珍寶들이 觀覽客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것은 무엇하나 發見할 수 없어 내 마음은 虛脫感에 사로잡혀 公허감을 메울 길이 없었다. 또한 뉴욕에서 부각된 길은 인상의 하나는 黑人들의 집들에 색깔이 뚜렷한 벽돌色을 出入門에 塗用하여 黑人의 집임을 쉽

사리 알 수 있게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것은 黑人들 스스로의 意圖에서 淸안되고 實行된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어서 黑人들의 독특한 生活方式을 表現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에서도 韓國人教授와 學生이 모두 同一職場에서 夜間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여기 職場에서는 學生이 教授의 上司로 支配權을 掌握하고 있기도한 기이한 일도 있다고 한다. 아무튼 아르바이트는 人生戰場의 많은 哀歎과 倒錯을 交叉시키는 美國的인 한 측면을 말해주는 오늘의 현실인 것 같다.

6. 納稅나 信用이 美國民의 生活源泉이다

高度로 機械化된 現代文明속에서도 美國民의 生活은 信用이 絕對源泉인 것이다. 商店에서 物品을 賣買할 때에도 間或 偽造犯들이 사용하는 偽造手票도 컴퓨터의 動員으로 즉시 발견된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에 稅金을 滯納하는 商人이나 會社는 그날로 休業이나 廢業의 苦杯를 甘受하여야 하며 企業界에서 再起不能할 程度로 納稅義務가 徹底히 履行되고 있는 社會인 것이 美國社會인 것이다.

7. 지금도 들리는듯한 맥아더 將軍의 名演說

맥아더 將軍과 아이젠하워 將軍! 그리고 우리 韓國과 因緣깊은 많은 將星들은 물론 美國을 오늘과 같이 크게 浮刻되게 만든 수많은 人材들을 낳아준 웨스트 포인트 陸軍士官學校(뉴욕에서 自動車로 2時間半의 距離) 構內에는 第2次 世界大戰 終熄에 즈음하여 日本의 山下大將이 降伏(필리핀에서)하는 모습과 軍服들이 陳列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感銘깊게 萬人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맥아더 將軍의 老益壯의 氣慨 높은 演說場面이다. 老年期에 2次大戰과 다시 6.25韓國動亂을 치른후 80高齡에 들어서 義務와 名譽와 國家란 演題로 母校에서의 마지막한 講演의 一節이 그 유명한 “老兵은 죽지않고 사라져간다”라는 말이다. 이 한마디에 보낸 拍手喝采가 널리 世界 구석구석에 까지 소리없이 메아리 쳤으리라 생각할 때 肅然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8. 囚人の 天國이라는 刑務所를 訪問치 못한 아쉬움

親友인 뉴욕大學에 勤務하는 社會學教授 말에 의하면 뉴욕郊外에 있는 囚人の 天國이라고 하는 싱싱(Sing Sing) 刑務所가 있는데 罪囚들이 收容된 監房이 施設面에 있어서 우리 韓國의 호텔과 손색이 없다고 한다. 罪囚들은 每日 8시간 工場의 所定部署에서 勞務에 종사하고 지불된 勞賃은 필요한 費用을 除하고 殘餘賃金은 貯蓄하여 出獄시에 支拂한다고 한다. 餘暇時間에는 野球·蹴球·테니스 등 各種 스포츠도 獎勵하여 餘暇善用과 教養에 노력케 한다. 犯罪人에게 苦痛을 주는것보다 그의 人間性을 感化改造케 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한다.

四. 워싱턴의 얼굴

1. 白聖館과 議事堂이 뜻하는 것

12月 9日 午前 7時30分 汽車便으로 뉴욕을 떠나 同 11時30分 워싱턴驛에 到着하였다. 워싱턴은 民主世界主宗國인 美國의 首都다운 雄壯한 都市라는 첫 印象을 새롭게 하여 주었다. 驛의 넓은 廣場 構內的 賓室 등의 施設이 많은 外來客들을 먼저 瞠目케하는 首都關門의 偉力を 誇示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나라 大統領의 執務室이 자리잡은 白聖館이 워싱턴에 雲集하는 世界觀光客들의 첫번째의 觀光對象(대개의 경우)으로 활짝 열려 있는 것이 美國의 面貌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졌다. 不過 3~4層의 白聖館이 建物으로써 有名한 것은 勿論 아니고 거대한 나라 美國의 國內政治와 世界政策을 創出하고 料理함에 있어서의 產室이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國會議事堂의 번지수가 1番地로 되어 있는 것이 議會中心政治의 美國을 새삼 再認識시키고 있다. 즉 議事堂의 地番이 1番地로 되어 있는 것도 美國의 모든 것이 議事堂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吟味케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2. 피끄리 목소리에 담으려는 一體意識

워싱턴시의 國會議事堂廳舍가 主要 觀光地로

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로써 每日曜日 이던 議事堂舍에 모이는 世界各國觀光客에 대해 여러가지 意味를 안겨주는 觀光이 있는데 이것은 白人女子와 黑人女子가 한 時間씩 交代해가면서 피끄리 목소리의 觀光案内 說明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美國은 黑·白人兩系의 미국이란 人상을 觀光客들이 갖게 하고 나아가서 黑·白人 一體意識을 實感시키는 政治의 效果도 이러한 사소한 方法을 통해 아울러 기대하려는 미국 政府가 아닌가하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3. 首都中心地 住宅의 主人은 黑人들

世界的으로 유명한 宇宙센터 紀念館에서 암스트롱과 그가 操縱한 歷史的인 飛行機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日本 飛行機가 陳列되어 있는것까지도 좋다고 하더라도 남의나라 日本의(日本人固有의 衣服 아래, 윗도리) 의상전시에서 前近代的인 衣冠文明에 대하게 되는데는 觀光客에 따라서 어리둥절하게 하는듯이도 보였다. 그런데 워싱턴의 中心地 D.C一帶의 주택값이 比較的 싼것은 黑人이 主된 住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白人들이 주로 居住하는 郊外의 집값이 오히려 高價라 한다.

4. 로맨스 그레이族이 물고 다니는 파이프의 멋

워싱턴 繁華街나 地下鐵을 지날 때 通行人中 主로 로맨스 그레이나 차아밍 쉘버族들이 입에 문 파이푸를 目擊케되는데 過去專賣官署에 몸담았던 筆者에게는 유달리 멋있고 品位있게 보였다. 同行하는 親友에게 有名한 煙草商店(Tobacconist)에 案内를 받아 數十年에 一寸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로 만든 有名한 파이푸를 사서 물고 旅愁을 달래 보기도 하였다.

5. 새로워져야 할 이미지

워싱턴을 비롯한 美國各地에서 삶을 營爲하고 있는 民間韓國人의 社會階層은 다양하다. ① 留學生 ② 醫師 ③ 母國에서 經濟的으로 살기가 힘들어서 渡美한 各業種의 就業者 ④ 西獨에 進出했던 鑛夫, 看護員 ⑤ 越南停戰以後 移住者 ⑥ 自營의 商人 ⑦ 一定한 職業이 없이 浮遊하는 不法入國者 등을 대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극히 유감스러운 것은在美僑胞의 團合力이 좀 부족한 點이다. 例를 들어 美國에서 살고 있는 中國人과 日本人들은 相扶相助의 度가 눈에 뜨이게 높은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韓國人들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것 같다. 僑胞商店으로 장사가 잘 되는것 같으면 영낙없이 그의 隣接地帶에 같은 業種의 새로운 僑胞商店이 競爭者로 나타나는 것과 不法入國韓國人에 대한 密告者가 또한 僑胞의 一部란 것 등이 新聞記者가 말해 주는 僑胞社會의 一斷面인 것으로 보아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를 改善하기 위한 格別한 努力이 要望된다.

한편 2세에 對한 母國語教育問題는 점점 重要性이 加重되고 있다. 이들 2세가 各級學校에서는 英語로의 教育을 받고 있으므로 土曜日, 日曜日을 利用 韓國語教育을 本格的으로 強化할 것은 勿論 그밖에 2세의 國語教育을 위한 效率的 方法이 總動員되어야 할 것 같다. 또 그를 支援하기 위해서 母國의 獎學財團의 눈길이 여기에도 돌려졌으면 한다. 母國語를 모르는 2세들이 母國愛를 喪失하는 것이 아닌가 저으기 念慮되는 바이다.

五. 로스앤젤레스에서 「嗚呼老矣」의 苦笑

1. 廣漠한 沙漠을 大都市로 만든 人間의 偉力

로스앤젤레스는 美國에서 第一의 大都市이지만 都市의 넓이도 世界的으로 最大라고 한다. 이 都市의 面積이 우리 京畿道 面積보다도 넓으니 말이다. 19世紀末까지도 막막한 沙漠의 땅을 沃土로 만들어 樹木이 鬱蒼한 現代의 大都市를 순전히 人力으로 建設한 바 四季節을 通하여 氣候가 寒暑가 없는 살기좋은 理想都市로 바꾸어 놓았다.

2. 僑胞의 人口數와 職種

로스앤젤레스의 韓國僑胞 推計 15萬名內外인데 10餘萬名을 上廻할 것 만은 분명하다. 이 多數僑胞의 營爲業種은 주로 食料品商·洗濯業·裁縫業·手工業·記念品販賣業·假髮業·注油所·食堂·不動產紹介業 등 各양각색이다.

특히 이 都市에는 주로 東洋人이 集團居住하

는 타운이 형성되어있는데 ① 日本人 ② 차이나 ③ 코리아타운 등을 들 수 있다. 이 地域에서는 前述한 뉴욕市에서 들은바와는 달리 同胞들간에 相扶相助의 氣風이 成熟되고 將來發展度가 넓은 거라는 말을 듣고 호뭇함을 느꼈다.

3. 디즈니랜드에서의 일

이곳을 찾는 觀光客이면 저 有名한 디즈니랜드(월드디즈니라는 사람이 만든 公園)를 觀覽하게 마련이다. 筆者가 이곳을 觀光한 날이 바로 大晦日이어서 各種 記念行事가 進行되고 있어 壯觀이었다. 이 公園을 現代文明의 象徴인 原子科學을 利用한 各種 施設 등이 있는 바 예를 들면 옛날 印度諸島의 海賊들과 아프리카의 험난한 정글속의 유명지, 우주탐험모형 등 하나하나 筆致로 說明을 다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특히 展望車를 타고 紀元前原始林속을 지날 때 들리는 恐龍의 울음소리는 實物이 살아 怒吼하는 것을 實感케 하였다.

특히 公園入口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에이브라함 링컨 紀念館이다. “人民의 人民에 依한 人民을 위한 政府”를 提唱 人類社會에 民主主義의 礎石을 定着시킨 링컨이 극도로 가난하고 어린 시절로부터 偉大한 美國의 大統領時代에 이르기까지의 그 生涯가 電動되고 있다. 즉 科學이 오늘날을 謳歌하는 電子作用에 의하여 살아있는 링컨 움직이는 링컨이 많은 觀覽客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4. 할리우드의 白日夢

美國의 五大産業의 하나이었던 映畫全盛時代가 칼라TV時代에 여지없이 敗退되고 말았다. 이래서 할리우드의 名優로 世界에 名聲을 떨치고 限없는 榮華를 누려보려던 젊은 名優志向者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진 셈이다.

서울 忘憂里고개의 傾斜度정도인가 생각되는 「비버리힐」에는 往年의 王座에 달리는 박찬 追憶을 달래는 老名俳優들의 豪華住宅이 지금도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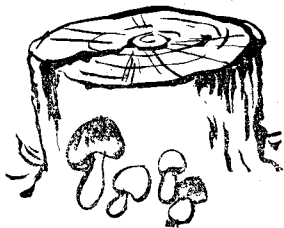
時價가 무려 20, 30萬弗에서 50萬弗(2億五千萬圓)의 이 住宅들은 庭園選好의 特徵이 浮刻되어 있어 이를 管理하는데만도 數名式의 常備 庭園

師가 必要할 程度라하니 蓄財한 老俳優들의 奢侈스러운 生態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와 對照的으로 칼러T.V에 비참하게 눌려버린 젊은 無名俳優들은 굶주린나머지 竊盜行爲를 例事로 하고 이거리 行人들속에는 그 환상의 마약중독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거리를 「헐리우드」가 아니라 「헐리위드」라는 踐待받는 別名의 거리로도 불리워지고 있다 한다. 浪說이기를 바라지만 심한 경우는 愛妻에게 私唱行爲를 시켜 生活에 도움되게 하는 紳士조차를 귀에할 수 있었다. 富國에도 貧富의 差로 困한 悲劇은 避할 道理가 없는 것인가 忖하기도 하였다.

5. UC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大學에서 苦笑

古代 原始林같이 樹木이 울창한 UCLA의 年間 運營豫算의 規模가 26億弗이란 사실하나만으로도 이 大學으로서의 雄大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① 學生數 4萬五千名 ② 教授數 千餘名 ③ 큰 캠퍼스 8個 ④ 單大 28個 등이 所屬되어 있는 이 學校의 校勢인데 校舎는 高層이 아닌 2, 3層인 것도 여유를 보이는 建築構造이다. 그리고 在學生中 美國市民權取得者에게는 登錄金을 全額免除 된다하니 우리 韓國의 大學教育의 實態와 比較한 勇氣조차 없다. 筆者도 나이 젊어서 이렇게 훌륭한 大學校의 學生이 되었다라던 하는 衝擊을 「嗚呼老矣」의 自嘲와 苦笑를 지어 보는 것이었다.



행 복 한 우 리 가 정

민 방 위 로 지 키 자